

■ 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

“살인→사체 손괴... 치밀한 범행”

범행 감추려 자해 시도
시신 발견 안돼 진술과
증거로 공소사실 입증



장기석 차장검사서 1일 고유정 기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고씨가 졸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진술과 상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단계에서 적용됐던 유기 혐의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인 강모(36)에게 먹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어 고씨는 해당 펜션에서 이틀간 시신을 훼손한 뒤 28일 오후 9시30분쯤 완도항 여객선 위에서 7분간 바다로 유기했고, 나머지 시신은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에서 추가로 훼손, 5월 30일 오후 11시와 31일 오전 3시, 2차례에 걸쳐 쓰레기 분류시설에 버렸다.

검찰은 5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통해 강씨에게 6살 난 아들을 보여줘야 될 처지에 놓이자 강씨를 ‘방해 요소’로 판단,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다음날인 10일부터 휴대전화로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했고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 17일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점, 펜션에 들어가거나 출전인 5월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칼과 표백제(락스), 도마,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한 점에 미리 살인부터 시신 훼손·정소·유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범행 직후 자신의 ‘우발적 범행’으로 꾸미기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던 것에 대해 분청 차원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수사 전 반을 짚어볼 것’이라며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자료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품과 고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도구 여러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고, 고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를 죽였고,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에 버렸다’는 진술과 훼손된 시신을 버린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송치된 고씨는 총 10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된다”, “지역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는 일반인이 상상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단계에서 말하지 못한 증거 등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부실수사 논란 진상조사 받는다

경찰청 조사팀 조만간 제주동부서 조사 착수

부실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팀이 구성됐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을 담당할 제주동부경찰서에 대해 이번주부터 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강력, 여성 청소년, 과학수사 가능 담당자로 구

성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동부서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분청 차원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수사 전 반을 짚어볼 것”이라며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자료로

삼겠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있어선 안 될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부서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조동 수사가 부실해 범행의 가장 큰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편 민갑룡 청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유정 사건에 대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역량을 국민의 눈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제2공항 여론조사’

“필요하다” 55%... “성산 적절” 49%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 무대행 장성철)과 바른미래당 싱크 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41.3%,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13.8%p 낮

게 나타났다. 연령별, 직업별, 이념 중립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제2공항의 최적지로 성산지역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8%가 ‘동의’ 했으며, 45.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2공항이 정부에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1.3%, ‘잘 못하고 있다’가 40.3%로 표본오차 범위내 차이를 보였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제주도정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4.7%로 조사

됐다. ‘잘 못하고 있다’는 25.2%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கட정 해결 활동 평가에 대해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7%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25.2%다.

한편 이번 조사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과 (재)바른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에 진행됐다. 제주지역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이 응답했고 응답률은 3.7%로 무선(50%), 유선(50%)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5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이소진기자



물질 끝낸 해녀들 1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안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으로 나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 전국적으로 예정된 총파업투쟁을 기정사실화해 제주에서도 급식·돌봄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해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영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7월 3일부터 3일 이상의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기에 당연히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총파업 선언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무직 노조 파업은 지난 3년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이어서 대책은 이미 잘 마련돼 있다”며 “돌봄(전담사)도 이번엔 처음 결합되는데,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대책들도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5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총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제주도정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해외축산물·가공품 반입금지
ASF발생국(아시아) 중 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방, 라오스 6개국 위반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및 특별공연 안내
개장기간: 2019. 7. 6. ~ 9. 7. 토요일 18:00-21:30 (총 10회)
개장장소: 제주목 관아 및 관덕정
운영내용
야간개장 시 목관아 관람객 무료입장 시행 (오후 6시 이후)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제2항(관람료 면제)
야간개장 특별공연 운영
- 일시: 2019. 7. 13. / 7. 27. / 8. 10. / 8. 24. / 9. 7. (총 5회)
- 장소: 제주목 관아 연희각 야외무대
문의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064-710-6713)

제주시정 소식
버려짐마 우아하게 아이키우기 부모역할교육 강좌 안내
일시: 2019. 7. 13. (토) 14:00 ~ 16:00
장소: 한라아트홀 소극장 (제주한라대학교 내)
대상: 영유아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240명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1)
우당도서관 '2019 가족드림캠프'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19. 6. 28. (금) 09:00 ~ 7. 4. (금) 17:00
운영기간: 2019. 7. 20. (토) ~ 7. 21. (일)
대상: 도내 초등학교생(1-6학년) 및 학부모(가족단위) 25가족(100명)
문의: 제주시 우당도서관(☎064-728-8332)
제주시아트센터 기획초청 '낙락락락제2019' 제주 공연 안내
공연명: 정동하, 낙락락락제2019
일시: 2019. 7. 13. (토) 오후5시
장소: 제주시아트센터 대강당
공연내용: 가수 정동하와 안에는, 국악그룹 소나기프로젝트와 아브스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콘서트
문의: 제주시 아트센터(☎064-728-1509)
제10회 백나야 가요제 참가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9. 6. 28. (금) ~ 7. 17. (수)
예심: 2019. 7. 22. (월) 14:00 ~ JIBS 스튜디오
본선: 2019. 8. 4. (일) 19:30 ~ / 금능해수욕장 특설무대
문의: 한림읍 주민자치팀(☎064-728-7617)
2019년 6월 연남 자동차세 신청 및 납부 안내
추진개요: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 기본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6월중 연남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신청 납부기간: 2019. 6. 1 ~ 2019. 7. 1
신청장소: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택스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4),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시행 안내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한 자중 10년이 경과한자
신청서류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수수료 2,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신분증 컬러사진(3.5x4.5cm) 2장
서류접수 및 문의: 제주시청 건설과(☎064-728-3748)

주간농업농촌소식
레몬 재배기술 교육 안내
최근 레몬 수요가 늘면서 레몬 재배에 관심을 갖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된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고품질 레몬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레몬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정 안내-
□ 일시: 2019. 7. 3. (수) 14:00-17:3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대강당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 대상: 제주레몬연구회 회원 및 레몬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
□ 주요 내용
○ 레몬 생리 및 시기별 관리요령
○ 감귤원 토양관리 방법
□ 일정표
시간 | 내용 | 비고
13:50 ~ 14:00 | 등록 |
14:00 ~ 17:00 | 레몬 생리 및 시기별 관리요령 | 김영효 박사
17:00 ~ 17:30 | 질의 및 답변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53)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